

한일경제협회 NEWS

제41호

2019

★★★★★

CONTENTS

Ⅰ 2020년도 사업계획

- 03 2020년 이사회 및 제39회 정기총회
- 04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 05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06 제2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Ⅰ 2019년도 사업실적

- 10 2019년 이사회 및 제38회 정기총회
- 11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13 2019년 한일경제 기업현안 토론회
- 15 2019년 K-Move School 일본취업연수 발대식
- 16 제2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16 제14회 한일학생미래회의
- 17 2019년 한중(지닝시) 산업협력 상담회
- 18 2019년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
- 19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 23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2019
- 23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환송회
- 24 제18회 한중해경제기술교류회의

Ⅰ 신규회원사 소개 및 회원사 동정

Ⅰ 한일통계자료

Ⅰ 회원가입 안내 및 회원사 리스트



謹賀
新年

밝아오는 2020년 새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한일경제협회 사무국 일동

2020년도 이사회 및 제39회 정기총회 개최(안)

2020년도 이사회 개최(안)

일 시	2020. 2. 26(수) 10:30 ~ 11:30
장 소	롯데호텔 36층 피콕스위트
의 안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 건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 건 제3호 의안 : 제39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

제39회 정기총회 개최(안)

일 시	2020. 2. 26(수) 11:30 ~ 13:00
장 소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의 안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 건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안)의 건

문의 : 한일경제협회 과장 서광현 (TEL : 02-3014-9886)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

THE 52nd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20. 5. 19~20 TOKYO, JAPAN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 간 무역, 기술협력, 경제협력 등 경제교류 촉진에 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해 경제 협력의 네트워크를 조성
기 간	2020. 5. 19(화) ~ 20(수) ※ 5. 18(월) 한국측 단장단 일본정부부처 예방
장 소	일본 동경(Hotel Okura 東京 Prestige Tower)
주 제	<p>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 신시대~</p> <p>▶ 제1세션 : 경제교류 ▶ 제2세션 : 인재·문화교류</p>
규 모	한일 양국 경제계 대표 300여명
주관·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정(안)	<p>5월 19일(화)</p> <p>14:30-16:00 개회인사, 내빈축사, 기조연설</p> <p>16:15-17:10 특별강연,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및 협회활동 경과보고</p> <p>18:00-19:30 리셉션(한일양국 경제협회 공동개최)</p> <p>5월 20일(수)</p> <p>09:00-11:40 제1세션(경제교류), 공동성명(안) 심의</p> <p>13:20-16:20 제2세션(인재·문화교류), 폐회식</p> <p>16:30-17:00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p>

문의 : 한일경제협회 부장 김정호, 과장 서광현 (TEL : 02-3014-9877, 9886)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계획(안)

2020. 3. 12~13, Hotel Okura 東京 Prestige Tower

개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한일경제인 회의」를 통해 양국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 •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4개 미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간의 무역확대 2) 한일간의 투자확대 3) 한일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4) 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 													
개최기간	2020. 3. 12(목) ~ 13(금)													
개최장소	일본 동경(Hotel Okura 東京 Prestige Tower)													
주 제	<p>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2020 SDGs신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세션 : 성장을 창출하는 한일 협력 - 새로운 경제제휴를 창조 - ▶ 제2세션 : 미래를 창조하는 인재·문화교류 - 2020새로운 START - 													
위원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한국측</th> <th style="width: 45%;">일본측</th> </tr> </thead> <tbody> <tr> <td>체어맨</td> <td>오석송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td> <td>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시멘트(주) 회장</td> </tr> <tr> <td>코디네이터</td> <td>이수철 (주)GH홀딩스 회장</td> <td>다카하시 노부야 NRI社会情報System(株) 사장</td> </tr> <tr> <td>일반위원</td> <td colspan="2">한일 양국 기업, 경제단체 등 60~70여명</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측	일본측	체어맨	오석송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시멘트(주) 회장	코디네이터	이수철 (주)GH홀딩스 회장	다카하시 노부야 NRI社会情報System(株) 사장	일반위원	한일 양국 기업, 경제단체 등 60~70여명	
구분	한국측	일본측												
체어맨	오석송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시멘트(주) 회장												
코디네이터	이수철 (주)GH홀딩스 회장	다카하시 노부야 NRI社会情報System(株) 사장												
일반위원	한일 양국 기업, 경제단체 등 60~70여명													
공동주최	(사)한일경제협회, (사)한국무역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정(안)	<p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3월 12일(목)</p> <p>18:00-20:00 리셉션(한일양국 경제협회 공동개최)</p> <p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3월 13일(금)</p> <p>09:30-11:30 제1세션(성장을 창출하는 한일협력-새로운 경제제휴를 창조)</p> <p>13:00-14:20 제2세션(미래를 창조하는 인재·문화교류-2020 새로운 START)</p> <p>14:40-15:30 전체토론, 폐회</p>													

문의 : 한일경제협회 부장 김정호 (TEL : 02-3014-9877)

제2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계획(안)

개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실물경제 교육을 통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열어 갈 경제발전의 주역인 청소년산업인재 양성 • 비즈니스 마인드의 향상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의 한일산업협력·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개최기간	2020. 8. 2(일) ~ 8. 6(목)
개최장소	일본 토치기 현 「나스고원 자연의 집(那須高原 自然の家)」
규 모	한일 양국 고등학생 80명(한일 각 40명)
주 최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후원·협력	후원 : 외무성(예정) / 협력 : 토치기현, (주)JTB
운 영	아이빛연구소(주)
테 마(안)	자연과의 공생
활동내용	한일 혼성 8개 팀으로 구성, 4박 5일간 합숙하며 토치기현의 각종 산업시설과 현장에서 일본 경제현장체험을 실시,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공생'으로 이어지는 양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기획·발표
일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2일(일) 출국, 오리엔테이션, 팀구성원 친해지기사업안 토의 8월 3일(월) 문화체험, 일본경제현장체험, 골든벨(퀴즈대회), 사업안 결정 8월 4일(화) 사업발표회 준비, 사업발표회 준비 & 리허설 8월 5일(수) 사업발표회, 표창식 및 수료식, 액션플랜 발표, 친구에게 한마디 8월 6일(목) 일본문화체험, 귀국

문의 : 한일경제협회 대리 이유경 (TEL : 02-3014-9866)

2020년도 (사)한일경제협회 주요 사업계획(안)

2019. 12. 현재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0(월)	도미타 코지 신임주한일본대사 환영회	서울
2	26(수)	이사회(회장단 회의)	서울
		제39회 정기총회	서울
3	12(목)~13(금)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쿄 오쿠라호텔
4		주한일본대사관-회장단 간담회(대사관)	서울(대사관저)
5	18(월)~20(수)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도쿄 오쿠라호텔
6		회장단·주한일본대사관·SJC 친선교류활동	한국
		한·중(지닝) 산업협력 상담회2020	서울
		2020 한일경제협회 회원사간담회,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서울
8	2(일)~6(목)	제27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도치기현(栃木県)
	중순	제15회 한일학생미래회의	일본
	하순	제2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강원도
10		회장단-주한일본대사관 간담회(협회)	서울(호텔)
	13(화)~15(목)	제26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구마모토현
12	초순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서울

※ ☞: 우리 협회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20년 주요 사업계획(안)

2020년도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요 사업계획(안)

2019. 12. 현재

월	일 자	사 업 명	지 역
1	하순	2020년도 한일재단 제1차 이사회	서울(롯데)
2	하순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유치사업 평가(KIAT)	서울(KIAT)
3	초순	2020년도 한일재단 제2차 이사회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승인	서울(롯데)
	초순	1차 제3국진출 한일협력 프로젝트 사전조사	말레이시아 (일재단공동)
	하순	모노즈쿠리(제조혁신) 전문가 워크숍	국내(창원시)
4	초순	모노즈쿠리 지역(서울) 스쿨 창립식 및 세미나	국내(시흥시)
	초순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35사)	동경/오사카
	중순~6월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지도(10사)	국내(전지역)
	하순	1차 모노즈쿠리 IoT 기술연수(20명)	일본
5	초순	2차 모노즈쿠리 IoT 기술연수(20명)	일본
	중순	청년인재 규슈지역 취업자 팔로업	일본(규슈) (규경련공동)
	20(수)	한일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일본(동경)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간 중	
	하순	1차 제조혁신 현장리더 육성(20명)	국내/일본
	하순	1차 기업 위기관리(BCP) 협력단(15사)	일본
6	매주(월요일)	모노즈쿠리현장개선 실습교육(15명×5회)	국내(시흥시)
	초순	일본기술자 초청 인재양성교육(40명)	국내(오산시)
	중순	일본기업 초청 교류협력(20명)	국내
	하순	2차 제3국진출 한일협력 프로젝트 사전조사	말레이시아 (일재단공동)

월	일 자	사 업 명	지 역
7	초순~11월	스마트팩토리구축 진단지도(12사)	국내(전지역)
	중순	한일양국재단 연락협의회 간사회	일본(동경)
9	중순	청년인재 일본기업 매칭 상담회(일본기업30사)	국내(서울)
	24(목)	한일산업기술FAIR 2020 - 청년인재 일본기업 매칭 상담회(일본기업15사) -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 - 한일산업기술협력세미나 - 한일 양국기업 비즈니스 상담회(일재단공동)	서울(롯데)
10	중순	2차 제조혁신 현장리더 육성(20명)	국내/일본
	19(월)~23(금)	제3국진출 한일협력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말레이시아 (일재단공동)
	하순	3차 모노즈쿠리 IoT 기술연수(20명)	일본
	하순	2차 기업 위기관리(BCP) 협력단(15사)	일본
11	초순	한일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간사회 실무자회의	국내(서울)
	초순	3차 제조혁신 현장리더 육성(20명)	국내/일본
	중순	2차 한일 방재산업 협력단 파견(15명)	일본
	중순	4차 모노즈쿠리 IoT 기술연수(20명)	일본
	하순	한일 IoT활용기업 교류협력	일본
	하순	2020년도 한일재단 제3차 이사회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서울(롯데)
12	초순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사업설명회(130명)	동경/오사카

2019년도 이사회 및 제38회 정기총회

일시 | 2월 12일(화) 10:30~13:00

장소 | 롯데호텔서울



협회 [회장 : 김윤(金鈞)] / (주)삼양홀딩스 회장의 제38회 정기 총회가 2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에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표가 협회 상임이사로, 황호균 (주)대성이노텍 부회장이 협회 감사로 새로이 선임 되었다. 아울러 작년 총회이후 황만용 신흥에스이씨(주) 대표, 김동원 한화생명(주) 상무 이사가 협회 상임이사로 추가 선임 되었다.

김윤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일관계에서는 민간채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경제협회가 한일의 연결고리로서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한일경제협력 다음 100년을 향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함께 한일경제인회의,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한일청소년교류, 해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올 해의 역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신임임원]



최정우 회장



허진수 회장



구자균 회장



박남숙 대표



황호균 부회장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기간 | 3월 13일(수)~14일(목)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주제 |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일협력!

한국무역협회·일한경제협회 와 공동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도약”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3일(수)~14(목) 양일간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오석송 한국측 চে어맨(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이수철 코디네이터(GH홀딩스 회장, 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 일본측 চে어맨(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6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하였다.



급변 회의에서는 세계경제둔화, 한일관계의 악화, 동북아정세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성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책 제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논의 의제를 상정하였다.☞

- 한계상황에 임박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언
 - 지일·지한 리더의 역할, 새로운 패러다임(초광역경제권, 벤처교류회)
- 서울재팬클럽의 활동과 과제 해결을 통한 한국사회 공헌 제언
 - 회원수·학생수 감소 대응, 양국 경제활동·문화교류 활성화 환경정비(투자·사업활동 현안 개선), 한국정부·기업과의 의견교환 지속
- 한국청년인재의 활용을 통한 한일경제협력 제언
 - 일본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청년인재의 활용
-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일 간 관계구축의 과제 해결을 제언
 - 여론조사결과 상대국에 대한 피로감 확대로 정치·외교의 안정이 중요, 한일 공동과제의 제휴(비방자제·관리, 네트워크 재건, 원원관계 확인)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도자료]



무역협회,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주제로 토론 진행



▲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1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경색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도약'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길 희망했다.

한국측 체어맨인 오석송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양국 기업인들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

2019년 한일경제 기업현안 토론회

일시 | 6월 26(수) 09:30~12: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주제 |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규모 | 한일 양국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 125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26(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일경제 기업현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 지금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업에의 영향을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일간 첨예한 현안으로 경제인 교류마저도 심대하게 악영향을받고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국정부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 간 교류 확대가 필요하고,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 간 교류 확대가 필요하고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대표이사는 “최근 한일관계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뢰 없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한국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현규 코릴 대표이사는 “일본을 제대로 알고 가까이 교류해야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는 “현재 주한일본기업 활동은 나쁘지 않으며 민간차원의 교류는 순조롭다”며 “정치문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완벽한 ‘Two-Track 정책’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노하라 오사무 다이이치시설공업 회장은 “벤처기업과의 매칭, 양국 중소기업간 개발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키요시 요시로 동우화인켐 대표이사 부사장은 “정치와 경제를 별개로 인식해 변함없이 고객사들을 응대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의 개정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현안 토론회 보도자료]



경총,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 개최

[매일경제 임형준 기자] 한일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색된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기업 활동과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한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김천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대표, 오현규 코릴 대표, 박인동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 겸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아키요시 요시로 동우화인캠 대표, 시노하라 오사무 다이이치시설공업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경제협력 관계와 경제인들의 우호친선 관계는 공고히 유지됐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양국 경제인들과 기업 간 더욱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회복에 기여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최근 한일 간 첨예한 현안으로 경제인 교류마저도 심대하게 악영향을 받고 있고,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양국 정부가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경제계의 우려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일 기업인들은 양국의 외교 관계 경색이 아직 사업에 구체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단계라고 진단하면서도 향후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민간 차원 경제인 교류가 악화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인 모리야마 도모유키 대표는 "현재 주한 일본기업의 사업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문제나 장애물이 발생했다고 들은 것이 없는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는 순조롭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치문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모두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전까지는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에서 북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관촬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일 관계의 악화 때문에 관촬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일종의 '컨트리 리스크'로 바라볼 때 관계 악화는 교역에 좋지 않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주 대표는 "최근 한일관계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뢰 없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對) 한국 투자가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9 K-Move School 일본취업연수 발대식

기간 | 7월 1일(월)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우리 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인력공단이 힘을 모아 한국청년인재의 일본취업을 지원하는 ‘2019년 K-무브(Move)스쿨 일본 취업연수 발대식’이 7월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경제계가 직접 주관하는 일본 현지기업 취업연계형 연수 프로그램이 작년에 출범한 이래 그 성과를 인정받아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 협회 김 윤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K-Move 스쿨 연수생 여러분은 우리나라 민간 외교관의 한 사람이다”며 “일본에서의 직장생활이 모범이 되어 다른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동사업은 K-Move 스쿨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청년고용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의 우수사례로 지난해 K-Move 스쿨 과정(일본 서비스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 수료생들은 일본의 호시노 리조트, FJ호텔, 도큐호텔, 오키다호텔 등 관광서비스업 취업에 성공했다. 

※ 일본의 취업시장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1.62개로, 0.65개인 한국과 비교할 때 일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본취업에 대한 한국 청년층의 관심이 꽤 높음. K-Move를 통한 해외취업자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2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기간 | 8월 5일(월)~8월 9일(금)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규모 | 한일 고등학생 60명(한국 30명, 일본 30명)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한일 혼성 6개 팀으로 구성,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기업 방문 및 실물경제 체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식품, 서비스, 관광·이벤트 3개의 분야에서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실물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중심 실물경제교육을 통해 차세대 경제발전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향상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의 한일 산업협력·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캠프를 위해 우리 협회 회원사인 (주)삼양사, (주)동원F&B, (주)호텔롯데, 서울가든호텔, (주)투어2000 그리고,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가 학생들의 실물경제체험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었다. ㉞

제14회 한일학생미래회의(KJSFF)

기간 | 8월 18일(일)~8월 23일(금)

장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규모 | 한일고교생교류캠프OB회 36명(한국 18명, 일본 18명)

테마 | 산업도시로서의 부산-한국(특히 개최지 부산에 관련)과 일본의 새로운 교류 방법에 대해 실용 가능한 공동 사업 구상 및 사업 계획서 작성



고교생교류캠프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깊고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사회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동 프로그램은 한일/일한학생미래회의(KJSFF·JKSFF)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가 후원하는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 관광, 언어, 음식, 외국인노동자 총 5개 소주제로 연구,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한일학생미래회의는 미래의 실질적인 한일의 교류를 이끌어 갈 양국 청소년들이 협동함으로써 지속적인 한일교류가 기대됨은 물론 한일교류의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㉞

2019 한·중(지닝시) 산업협력상담회

기간 | 8.10(월)~12(수)

장소 | 중국 산둥성 지닝시

규모 | 한국기업 24명, 중국기업 176명 ※ 상담회 한국기업 17개사(20명), 중국기업 44개사(81명)



11월 중국 산둥성 지닝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중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교류 지원을 위한 상담회가 장비제조(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에너지·신소재, 바이오의약, IT, 서비스(은행, 금융, 호텔), 문화관광(여행사) 등 6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중국 지닝시에서 실시되었다.

비즈니스상담은 한국기업 17개사 20명, 중국기업 44개사 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92건의 상담을 진행, 약 5,800만 달러 금액 규모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상담회에 앞서 중국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아미코젠생물의학유한공사, 보림전자 2사의 중국 진출 성공사례와 산업시찰 등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우리협회는 이번 한중 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황해권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2019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

일시 | 9월 22일(일) 07:30~15:00

장소 | 안양컨트리클럽

규모 | 13명(한국측 8명, 일본측 5명)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김운 회장은 협회 회장단과 함께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嶺 安政) 일본대사, SJC이사장 등을 초청하여 친선교류활동을 가졌다.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일본대사 초청 친선활동은 금년 냉각중인 한일관계 속에서도 개최되어 양국 경제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운 협회회장은 한일 경제관계가 양국의 외교적·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경제 협력 활동은 강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모임활동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나가미네 대사는 연기된 끝에도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무사히 개최기로 한데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기간 | 9월 23일(월)~25일(수)

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주제 |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일협력!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한일 공동과제의 실현 -

규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 209명(한국 203명, 일본 106명)



한일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양국간의 무역, 산업, 기술협력 등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업계의 의견이 양국 정부, 유관기관에 전달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간 갈등으로 금년도 5월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9월로 연기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한일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양국 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제면에서도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으나, 중단없이 경제협력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으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는 회의가 되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의로 경쟁 하면서, 최대한 협력을 통하여 공존공영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등 공통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한일 양국은 소통과 협력이 절실 하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성명 주요내용

-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강구 요망
-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하기 과제에 관해 연계하여 추진
 - 제3국 한일 협업의 지속 추진
 - 한일 양국의 고용문제·인재개발 등 양국 공동과제 해결 협력
 - 한일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 격동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9년 9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20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6명이 참가하였다.

작년 5월, 도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기념비적인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EU탈퇴(Brexit)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미중 통상마찰이 서플라이 체인의 연관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중동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한층 고조되어, 한일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문화·스포츠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안타깝게도 한일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동안 양국 민관의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 한일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제 24일과 오늘 25일 양일간,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진지하게 미래지향의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하여,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해,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중추가 되는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와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민간의 입장에서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계의 신뢰관계와 양 국민의 원활한 왕래가 조성되도록 활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은,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에 관해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다 음 -

1.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
2.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4.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5.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향한 협력

그리고, 다음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25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보도자료]

※ 국내외 80여명에 이르는 취재진이 24일과 25일 이틀간 한일경제인회의를 집중 취재보도,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니혼케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일간공업신문, KBS, NHK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환기시킴으로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東亞日報

2019년 09월 25일 (수)
02면 종합

한자리 모인 한일 재계 “갈등 장기화땐 경제전반 악영향”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300여명 참석
“불매운동, 대기업에 그림자 드리워”
“재계가 해빙 분위기 조성” 뜻모아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라 크게 우려된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한일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경제계가 먼저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계 수장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도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특 막힌 양국 관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9년에 처음 열린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 측 단장인 김은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협력해 공존 공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회사를 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두 나라 기업은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등 제3국에서 총 95건, 280억 달러에



손 맞잡은 한일 재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은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장승은 기자 tomalc99@donga.com

이르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이 제3국에서 협업하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해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재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인사도 참석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은 상호 분업에 반대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최근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 나가미네 대사는 “민간 차원의 한일 관계 토대가 되는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이 줄어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연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단장의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22.3 X 21.4 cm

중영일보

2019년 09월 25일 (수)
804면 경제

한일 재계 300명 “기업교류는 계속”

서울서 51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갈등 속 무거운 분위기 진행
유명회 본부장, 일본대사도 참석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데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 양국 간 정치외교의 복구가 필요하다.”(사사키 마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한일 간 갈등과 관계 경색이 너무 안타깝다. 기업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념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다. 조속히 양국 관계가 복원되길 바란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24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 300여 명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양국 정부 간 정치·외교 갈등이 교역으로 확대되는 데 경제인이 실제 우려를 표하면서 행사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온 일본 기업인은 ‘정치·외교와 별개로 기업 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심양홀딩스 회장)은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야 한다”며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손경식 경총 회장(CJ 회장)도 “한일 간 무역분쟁은 (기업 간) 오랜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공급망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해 양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적 호혜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심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마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한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회장, 사사키 마키오 회장, 나가미네 아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기업인도 현재 상황을 “출구가 안 보이는”, “폭넓은 피해”, “(기업에) 절실한 문제” 등으로 표현하며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마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치단체·문화·스포츠 간 교류도 한일은 긴장의 연속”이라고 진단했다. 마키오 회장은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 소비자,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라는 점에서 정치·외교 관계의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마키오 회장은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에 한일 기업이 공동 투자를 하고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인은 50년 동안 구축한 관계를 결코 무너뜨리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한·일 정부를 대표

해 유명한 통상교섭본부장과 나가미네 아스마사 주한일본대사도 참석했다. 유명한 본부장은 “한일관계가 어렵더라도 양국 교류와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마사 대사는 “최근 불매운동이 일본기업 경제활동 그림자 드리우는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한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1969년부터 매년 열렸다. 당초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일한경제협회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지난 7월말에서야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한국 재계에선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투자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정택 포스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선 도요타자동차·아소시멘트·스미모토(상사·화학)·오오가키정공·호텔오쿠라 등에서 참석했다.

박수현·임성민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16.9 X 23.3 cm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 2019

기간 | 9월 23일(월)~25일(수)

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테마 | 한일 공통의 과제 ~ 글로벌 인재활용 ~

규모 | 35명(한국 25명, 일본 10명)



한일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양국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글로벌 인재활용이라는 한일 공통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양국 민간레벨의 책임자 회의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청년 취직난과 일본의 고용문제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과제 해결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제로, 2018년 활동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일 공통의 과제인 일자리 확보와 한국 인재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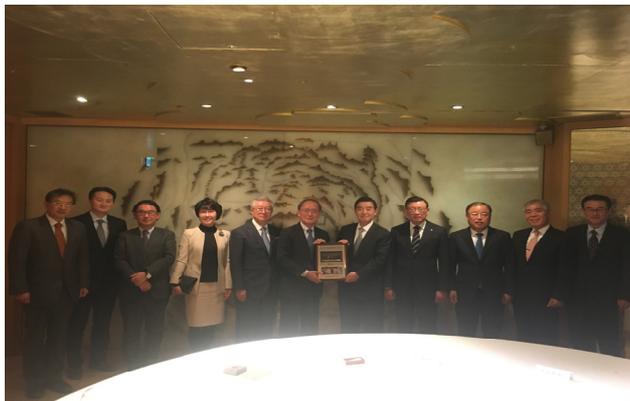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2015년부터 청년인재 일본기업 매칭지원을 통해 총 196명을 일본기업에 취업시켰으며, 큐슈경제연합회는 IMI국제경영원과 협력하여 '일본 서비스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음.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환송회

일시 | 11월 20일(수) 18:00~20:30

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8층 무궁화

규모 | 11명(한국 7명, 일본 4명)



김윤 회장은 재임기간중 한일 양국 교류협력증진에 힘써온 나가미네 대사의 환송회를 주최하였다.

특히, 경제인들과의 활발한 교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나가미네 대사는 재임기간 중 협회측의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임 대사에 대한 지원도 부탁했다. 

제18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기간 | 11월 20일(수)~23일(토)

장소 | 중국 산둥성 지닝시 상그릴라호텔 취푸

테마 | 지역간 교류·협력의 추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규모 | 379명(한국 61명, 중국 265명, 일본 51명, 한중일협력사무국 2명)

한중일 3국의 환황해권 지역 간 협력 및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회의가 중국 산둥성 지닝시에서 개최되었다.



한중일 3국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는 동 회의에서는 환황해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비즈니스시장 창출을 위한 기업간 상담회 개최는 물론 3국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중점산업인 첨단장비 제조업, 바이오의약, 친환경에너지, 신소재등의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간 교류 협력 추진 및 혁신적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통한 환황해 지역 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환황해 지역의 공동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회의는 환황해 지역의 공동 발전 촉진을 위한 3국 중점 산업 사례 발표 및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포럼과 3국의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방식, 투자유치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산업협력포럼, 그리고 환황해 지역의 경제교류 모델 구축에 관한 '지역간 교류, 협력 추진 및 신산업, 신시장 창출' 방안을 발표하는 본회의와 한중일 3국 국장회의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한중 양국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기업간 1:1 매칭 상담회도 병행 개최되었다.



신규 회원사 소개



LS산전(주)
구자균 회장

LS산전 협회 부회장

- 업 종 : 전기전자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 창립연도 : 1957년
- URL : www.lsis.com



GS칼텍스(주)
허진수 부회장

GS칼텍스(주) 협회 부회장

- 업 종 : 유류, 석유화학제품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창립연도 : 1967년
- URL : <http://gscaltex.co.kr>



다이이치교통산업코리아(주)

- 업 종 : 택시운송업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창립연도 : 2018년
- URL : www.daiichi-koutsu.co.jp



다이이치교통산업코리아(주)
에지마 나오토 전무이사

회원사 동정



삼양홀딩스
김 윤 회장

삼양그룹,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상당 성금 및 의약품 기부

- 삼양사, 삼양패키징은 성금 5000만원을 기탁, 삼양바이오팜은 5000만원 상당의 류마스탑 지원
- 성금 및 의약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 고성, 동해 등 피해 주민들의 구호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한국농식품유통대상 장관상 수상

-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농협택배'가 농산물 택배 편의 제공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
- 한진-농협물류, 일손 부족한 농가 방문하여 일손 돕기 사회공헌활동 지속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화큐셀, 제16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 신성장 경영대상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 기반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에너지 선진시장에서 점유율 1위 달성, 고용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



신도리코
우석형 회장

신도리코가 설립한 가현신도재단 'i3CDE 2019 컨퍼런스'서 가현학술상 시상

-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가현학술상,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i3CDE 2019 컨퍼런스'에서 국제논문부문 시상
- 가현신도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전개, 올해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국 50여개 학교에 3D프린터 기증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

세아제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 세계일류상품' 강관분야 6개 상품 선정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세아제강의 6개 상품 등재
-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아제강이 수출하고 있는 'ERW K55 유정용강관'을 포함하여 6개 강관제품 선정, 국내 강관 제품 등재 기업 중 최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 윤종규 KB금융회장, 제51회 '한국의 경영자 상' 수상

- '한국의 경영자 상'은 KMA 한국능률협회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기업인에게 수여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사회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선 점 높은 평가



(주)포스코
최정우 회장

■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 성과 보고, 재무 성과 1조 2천 400억원 추산

- 지난해 11월 100대 개혁과제 발표 이후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 과제와 해결방안 발굴
- 철강·에너지·소재 등 기존 사업의 결실 외에 기업시민 경영이념·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 이끌었다는 평가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019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 지난 2년에 걸쳐 오렌지라이프 및 아시아신탁 2건의 큰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음
-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 열린 소통과 프로세스, 금융회사로서의 비전 공유,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접근방식이 주요 요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영관 회장

■ 도레이첨단소재 마곡 신사옥 입주, 연구센터 합류

-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공사 거쳐 지상 8층 규모의 사옥 완공
- 지난해 매출 2조 4325억원을 달성하여 초일류기업으로 성장, 20년간의 성장에 이어 소재산업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비전2030 선포



투어2000
양무승 회장

■ 투어2000 양무승 회장,日本政府 표창

- 일본과 한국 양국 간 관광 교류와 우호적인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14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받음
-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광금훈장(Medaille du tourisme) 수여

한일 통계자료

I 교역

《단위 : 억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수출	346.6 (△10.7)	321.8 (△7.2)	255.8 (△20.5)	243.6 (△4.8)	268.2 (10.1)	305.3 (13.8)	237.2 (△6.6)
수입	600.3 (△6.7)	537.7 (△10.4)	458.5 (△14.7)	474.7 (3.5)	551.2 (16.1)	546.0 (△0.9)	401.2 (△12.8)
무역수지	△253.7	△215.8	△202.8	△231.1	△283.1	△240.8	△169.0
총교역액	946.9	859.5	714.3	718.2	819.4	851.3	633.4

※ 19.10월 기준, 일본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 3위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
 ※ 19.9월 기준,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4위.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

I 투자

《단위 : 억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
일본의 대한투자	26.9 (447건)	24.9 (352건)	16.7 (314건)	12.5 (299건)	18.4 (328건)	13.0 (335건)	11.3 (187건)
한국의 대일투자	9.5 (647건)	5.9 (649건)	8.8 (673건)	6.5 (715건)	8.1 (868건)	15.0 (888건)	5.5 (437건)

※ 18년 기준, 외국의 전체 대한투자 중 일본은 6위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일본은 10위
 ※ 산업통상자원부(일본→한국), 한국수출입은행(한국→일본)

I 인적교류

《단위 : 만명,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JNTO》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방한 일본인	274.8 (△21.9)	228.0 (△17.0)	183.8 (△19.4)	229.8 (25.0)	231.1 (0.6)	294.9 (27.6)	275.8 (15.4)
방일 한국인	245.6 (20.2)	275.5 (12.2)	400.2 (45.3)	509.0 (27.2)	714.0 (40.3)	753.9 (5.6)	513.2 (△18.1)

※ 19.9월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중 방한일본인 비중은 19.4%로 2위, 방일한국인 비중은 20.2%로 2위

(사)한일경제협회 회원가입 안내

우리협회는(회장 :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한일 간 민간 경제 협력·무역증진·산업협력 등을 위해 1981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자매기관인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한일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기업인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해 가고 있는 우리협회는 일본의 각 지역(호쿠리쿠, 큐슈, 동북, 중부 등)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폭 넓은 한일 경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회원사간담회 및 SJC(서울재팬클럽)등과의 교류간담회
-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 한일 지역 간(호쿠리쿠, 큐슈, 동북, 중부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회원사 자녀 대상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운영,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 지원
- 경영자 및 기술자의 해외(일본, 유럽, 독일 등)연수
- 한국 청년인재의 일본기업 취업 지원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초청 기술지도
- 수출확대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수시 정보제공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성장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명실상부한 대일협력 창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음/양)
주 소	☎		
T E L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광업	기계	운수창고	
섬유, 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종이, 목재, 출판	전기장비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화학	의료정밀	지주회사	
의약품	운수장비	법무, 회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가스	기타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건설업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철강, 금속	유통업	그 외 업종()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인

(사)한일경제협회 귀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 khsuh@kje.or.kr) 송부

※ 주소 : (0605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8-4 한일재단빌딩 4층 (FAX : 02-3014-9899)

(사)한일경제협회 회장단 명단

※ 선임연도 및 가나다순, 2019.12

회 장(1명)	김 윤 (KIM Yoon)	(주)삼양홀딩스 회장
명예회장(2명)	김 상 하 (KIM Sang-Ha) 조 석 래 (CHO Suck-Rai)	삼양그룹 명예회장 효성그룹 명예회장
고 문(6명)	허 창 수 (HUH Chang-Soo) 박 용 만 (PARK Yong-Maan) 김 영 주 (KIM Young-Ju) 김 기 문 (KIM Ki-Mun) 손 경 식 (SOHN Kyung-Sik) 이 윤 우 (LEE Yoon-Woo)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주)인투테크 대표이사
부 회 장(18명)	서 민 석 (SUH Min-Sok) 김 승 연 (KIM Seung-Youn) 우 석 형 (WOO Suk-Hyung) 류 진 (RYU Jin Roy) 박 삼 구 (PARK Sam-Koo) 신 동 빈 (SHIN Dong-Bin) 장 세 주 (CHANG Sae-Joo) 이 휘 령 (Howard LEE) 조 현 준 (CHO Hyun-Joon) 윤 종 규 (YOON Jong-Kyoo) 문 규 영 (MOON Kyu-Young) 손 봉 락 (SOHN Bong-Rak) 조 용 병 (CHO Yong-Byoung) 윤 부 근 (YOON Boo-Keun) 구 자 균 (KOO Ja-Kyun) 최 정 우 (CHOI Jeong-Woo) 허 진 수 (HUH Jin-Soo) 조 원 태 (CHO Won-Tae)	DI동일(주) 회장 한화그룹 회장 (주)신도리코 회장 풍산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롯데그룹 회장 동국제강(주) 회장 (주)세아제강 부회장 효성그룹 회장 KB금융그룹 회장 아주그룹 회장 (주)TCC스틸 회장 (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삼성전자(주) 부회장 LS산전(주) 회장 (주)포스코 회장 GS칼텍스(주) 회장 한진그룹 회장
상임이사(15명)	김 희 용 (KIM Hi-Yong) 이 수 철 (LEE Soo-Chul) 박 인 구 (PARK In-Gu) 이 영 관 (LEE Young-Kwan) 이 경 재 (LEE Kyung-Jae) 김 강 희 (KIM Kang-Hee) 이 상 준 (LEE Sang-Joon) 최 우 각 (CHOI Woo-Kak) 양 무 승 (YANG Moo-Seung) 채 승 우 (CHAE Seung-Woo) 김 천 주 (KIM Chun-Joo) 황 만 용 (HWANG Man-Yong) 김 동 원 (KIM Dong-Won) 박 남 숙 (PARK Nam-Sook) 우 기 흥 (WOO Ki-Hong)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주)CJ건설 고문/(주)GH홀딩스 회장 동원그룹 부회장 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 (주)삼진엘앤디 회장 (주)동화엔텍 회장 (주)화인 대표이사 (주)대성하이텍 대표이사 (주)투어2000 대표이사회장 삼남석유화학(주) 사장 캐논코리아BS(주) 대표이사 신흥SEC(주) 대표이사 한화생명(주) 상무이사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표 (주)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
상근임원(1명)	서 석 송 (SEO Seok-Soong)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감 사(2명)	이 승 호 (LEE Seung-Ho) 황 호 균 (HWANG Ho-Kyoon)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주)대성이노텍 부회장

(사)한일경제협회 회원사 명단

※ 120개사, 가나다순, 2019.12

가나피엔엘	SAMCO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교세이국제특허정보	서포트포유	캐리마
금복주	성현ENC	캐피탈원
금호아시아나그룹	세아제강	KB금융그룹
금호타이어	범무법인 세종	티시스틸
김&장 법률사무소	수산중공업	투어2000
남덕물산	슈퍼라이트케이스	TCC스틸
네오티스	식탁이있는삶	TS대한제당
농심	신도리코	티티에스
다이이치교통산업코리아	신성솔라에너지	팬코
대농	신한금융지주회사	포스코
대상중공업	신한은행	풍산그룹
대성산업	신현권 회계사무소	프로텍
대성이노텍	신흥SEC	하이드로텍
대성하이텍	CJ건설/GH홀딩스	한국가스공사
대영회계법인	CJ제일제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아띠글로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항공	아주그룹	한국넛켄
도레이첨단소재	에스씨케이	한국로스트왁스
동국제강	SLK국보	한국무역협회
동아쏘시오홀딩스	에스엠코리아	한국보팩터미날
동양물산기업	SK네트웍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동원그룹/동원F&B	HG신소재	한국수출입은행
동일방직	엔에스사인기획	한국SMC공업
동화엔텍	LS산전	한국에이엔디
두산	LG상사	한국OSG
롯데지주	우성정공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롯데케미칼	유승산업	한영닉스
반석정밀공업	유진기업	한일금속공업
베스트웨스턴코리아	이노라이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보문	재성	한진그룹
산업연구원	재영솔루텍	한화그룹
삼남석유화학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한화생명
삼성물산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인여행
삼성전자	조선내화	현대종합상사
삼양홀딩스	중소기업중앙회	현우무역
삼양화성	GS칼텍스	호텔롯데
삼익테크	GMK코리아	화인
삼일물산	지오네이션	효성그룹
삼진엘앤디	GGM	히카리정보